

다산포럼

남영신



지난 10월 9일은 562번째 맞은 한글날이었다. 나는 이날만큼은 조금 의미있는 방식으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에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기관과 대학 등 120군데에 권고문을 보내 각 홈페이지의 초기 입력상태를 한글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하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가 기관이나 언론기관, 대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쓰는데 왜 한글 대신에 영문이 나오는지 그대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먼저 이 사실을

열린 문화부, 막힌 교육부

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그 부분을 수정해 놓았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실행하지 않았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의 답에는 미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를 지적해 준 덕에 고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도 이를 고쳐도록 권하겠다고 했다. 이 답신을 받은 날 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가운데 국립국어원과 국립국어원은 모두 한글 입력 상태로 되어 있다.

우기를 얻은 나는 다시 청와대와 교육

부 등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을 알리고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거듭된 나의 요청을 받고 2주일 만에 수정해 놓았다.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에 한영 변환키를 누를 필요가 없어졌다.

이 밖에도 나의 요청을 고맷게 생각하고 즉시 수정해 준 기관은 국회, 국토해양부, 검찰청, 국세청, 조달청, 부산시, 충청남도, 한겨레, 동아일보 등 20개 기관 쯤 된다.

그런데 나의 이 요청을 지극히 외면하는 기관이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유독 정

말 꿈쩍도 안 하는 곳이 있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 등 교육 관련 부처와 기관이었다.

영어 몰입 교육을 위해서는 엄청난 국가 예산과 대학 예산을 쓰면서도 한글을 자기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교육부이고, 교육청이고, 대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이 기관들의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통합 검색이라는 검색창이 있다. 이 창에는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한글로 적혀 있다. 거기에 검색할 내용을 한글로

입력하면 한글이 나오지 않고 영문으로 나온다. 이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건 언어 주권의 문제이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영문 입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입력자가 반드시 영문만 입력하도록 했다면 이런 언어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할 것이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런 불필요한 짓을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 초기 입력 상태를 한글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한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초기 입력 상태를 영문으로 방치해 놓고 한글을 입력하려면 한영 변환키를 누르게 해 놓았다. 모든 국민더러 한글보다는 영문을 쓰라고 권하는 듯하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한국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과 글이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대견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인터넷 환경에서 한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배려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 주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교육청, 서울대학교 등 우리나라의 교육 기관을 대표하는 이 세 기관에게 부탁한다.

<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시기·절차 서둘러라

여야가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기로 합의했다. 어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시기와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등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지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은 의혹투성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비공개와 자료 폐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개입 주장 등 새로운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은 의혹을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 광주·전남농민회는 어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배 아저씨위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 광주·전남농민회는 어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배 아저씨위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시기와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치열한 합력투기가 예상된다. 특히 증인 채택은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 참여정부 핵심인사와 현 정부 고위공무원들이 의혹에 관연돼 있는 만큼 격렬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시기와 절차부터 서둘러야 한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늦어지면 국민의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현직 정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정조사 과정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등 본질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국정조사는 빠른수록 바람직하다.

올릴 때와 내릴 때 다른 기름값 개선해야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인상할 땐 재빠르지만 내릴 때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최근 기름값 동향을 보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유가는 3개월여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국내 기름값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지난 19일 리터당 1천688원 선이었다. 지난 7월 중순 최고치를 기록했던 1천 939원보다 13% 정도 내렸지만 국제유가 하락 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유가가 같은기간 배럴 당 139.3달러에서 61.31달러로 56%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너무 큰 것이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변동 폭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면 2~3주 정도 시차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유사가 기름값을 낮춰도 일선 주유소에서 월말

시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유가 하락폭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세금과 교통비용, 마진 등이 기름값에 포함돼 있어 인하율이 기대치에 못미칠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도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시스템 차이와 환율 및 세금 등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유가 변동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암채 상술'이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기름값 결정구도와 유통구조 등을 개선, 소비자들의 불만을 덜어줘야 한다. 담합 등을 통해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사례는 없는지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無等鼓

수확자들은 하나의 문제에 오직 한 개의 답, 즉 똑같은 값을 내놓지만 경제학자들은 여러가지 다른 답을 제시한다. 가령 2명의 경제학자가 정반대의 답을 내놓아도 그들 모두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경제학의 특성이다. 하나의 경제현상을 놓고 연구, 분석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다른 경제법칙이 나 해결책이 도출된다는 의미다.

지난 20세기에 세계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밀턴 프리드먼과 존 메이너드 케인즈도 180도 다른 경제이론으로 최고의 경제학자 반열에 올랐다. 프리드먼은 현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창시자다. 시장 만능주의자였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고 시장은 가만히 놓아둘수록 잘 돌아간다는 이론을 설파했다. 197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케인즈는 1930년 대공황 시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의 케인즈 경제학을 창시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정한 통제와 개입, 대공황의 수렁에서 세계 경제를 구해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타임지 선정 20세기 20대 인물, 10대 경제학자로 올랐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했다.

대신 그와 경제사상적 맥이 통해 신 케인즈주의자로 불리고 있으며, 프리드먼이 대부적인 시카고 학파와 이념

상 정반대에 서있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한다.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기업, 사회구성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진보주의자다.

주목할만한 점은 그의 경제이론이 대공황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의 금융혼란 시기에 큰 빛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시장만이 정당이라고 믿는 자들은 배가 아프겠지만, 시장은 결코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은 또 다른 정당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h@kwangju.co.kr

정반대' 정답



NGO 칼럼

송준석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기본과 본질은 어디가고 방편과 편리를 앞세우는 효율만 판을 치고 있다. 그것에 강력하게 철벽을 가한 것이 유전자 조작 식품, 공우병, 펠라민과 맹종성 전류 농약 파동이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문제가 언급되기 이전,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육류와 튀김 위주의 인스턴트 음식과 외식산업의 입맛에 길들여져 외형적 신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성장하였으나 체력이 약해졌고 몸이 보내는 이상한 신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성장의 원리에 의해 무시돼 식물제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유아교육기관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유행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먹을 식(食), 밥 식(食) 자는 사람 인(人)에 어질 양(良)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먹을거리가 인성에까지 작용한다는 선현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무엇을 먹느냐가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몸·마음·영혼은 분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진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애심으로 열매 맺어진 기록한 선

육지 거북의 슬로 라이프



요즘 애완동물 시장에서 각광받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육지 거북류이다. 간단한 보은 시설만 갖추면 까다롭지 않게 키울 수 있고 위험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북은 보기와는 달리 악어와 뱀과 같은 파충류로 분류된다. 피부의 비늘과 번은 동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저럼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선량한 모습 보면 파충류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물론 수많은 거북류 중에는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처럼 포악한 육식성 거북들도 있다.

거북은 옛적 파충류가 지배하던 공룡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잘 번성해 온 화석동물이다. 이들이 이렇듯 모진 풍파에도 멸종하지 않고 장수를 누린 것은 순진한 온 몸을 감싼 무게가 감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거북만의 특이한 감투는 말 그대로 포식자의 공격과 비바람 등 모진 환경

아래에서도 이들을 살아나게 한 보호막이자 움직이는 집이다.

이들은 공격자가 나타나면 도망치는 대신 목부터 사지까지 모두를 이 갑옷 속에 집어넣고 마치 돌멩이처럼 껍 속을 츠린다. 공격자들은 한참 이리저리 뒤적거려도 결국 되돌아설 수밖에 없다. 긴 목이 들어가는 형태도 다양해서 피스톤처럼 직선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뱀목 거북은 이를 그대로 목이 길이 S자 형태로 구부러 들어간다.

육지 거북은 아주 느리게 세상을 사는 대신 그만큼 장수하는 동물이다. 진정한 슬로 라이프의 모델이 바로 이 거북이다.

◇최종 목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필자의 사정으로 '찰각! 동물세상'은 이번 호를 끝으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反韓 감정'은 우리 잘못... 중국에 대한 인식 바꿔야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은 심각하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한 중국인 학생이 처음 한국에 와서 자취방을 얻었는데 그 집 주인이 칫솔과 치약을 건네주면서 "중국에서 선진국으로 유학까지 왔으니 양치질도 제대로 배워줘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 한 번은 학교에서 한국인 동료 대학생이 그에게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것을 보니 너희 집은 꽤나 부자인 모양이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어처구니없어해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고 한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다 중국을 못사는 나

라, 중국인들은 저개발 국가의 비문화적 국민이며 궁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으니 당사자로서는 정말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사 그제 사실이라 해도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다.

이 밖에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 가게 주인들은 일본 손님이면 웃는 눈은 낮은 대하고, 중국인이 가면 쌀쌀맞고 경계하고 혐악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은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잘못이 계속 쌓이면서 생긴 듯하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하루빨리 바꿔, 중국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 급하다.

▲조한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정년 3년 미만 7급 공무원에 '보수동결 승진제' 시행을

얼마전 언론 보도에서 9급 공직 임포 후 5급 공무원인 사무관에 진급하는 데는 평균 52.8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했다고 한다. 그만큼 진급이 어렵다는 얘기이다.

현재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대부분 중간관리자인 6급으로 퇴직하지만 7급으로 공직을 마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본인도 그 가족들은 6급은 달고 퇴직하는 게 명에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6급조차 못 가보고 퇴직한다면 그동안 공직생활에 봉직한 기여도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울

것이다.

인사는 능력 위주로 되어야 하겠지만, 정년 3년 미만의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시키되 보수는 동결하는 '보수 동결 승진제'를 시행하면 어떻까하고 생각해 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들이 장기근속으로 인해 임금이 비싼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임금 피크제'를 변형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1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주시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사회 2부	2200-619	경명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어촌개발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명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